플라멩코·타악… '판앤보이스' 관객 찾는다

광주북구문화센터 기획 시리즈
28일 옴팡 무대 등 4회 공연
전문예술단체 특별기획공연
놀이패 '신명' 다양한 작품도

퓨전 플라멩코 그룹 '옴팡'의 공연 모습.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광주 북구문화센터가 올해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북구문화센터는 오는 28일 기획 시리즈 'Pan(判) and Voice(聲)'(판앤보이스)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해 '한국음악, 여섯 개의 길로 떠나는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던 첫 번째 이어 올해는 '판앤보이스'라는 타이틀로 모두 4차례(4·6·9·11월)에 걸쳐 시즌2 공연을 펼친다.

시즌2 첫번째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體(체) : Alma Libre(자유로운 영혼)'를 주제로 국내 최고의 퓨전 플라멩코 그룹 '옴팡'이 무대에 오른다.

'작지만 옹골차게'라는 뜻의 옴팡은 지난 2017년부터 스페인 정통 플라멩코의 춤과 노래는 물론 귀에 익은 우리나라 대중가요와 전통민요를 접목해 새롭고 재미있는 공연을 펼치고 있는 팀이다. 옴팡은 기타 김동욱, 플라멩코 춤 이영자, 보컬 최하나, 퍼커션 김상봉으로 구성됐다.

옴팡은 이번 공연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스페인의 종합예술 플라멩코를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민속가요와 콜라보해 3부에 걸쳐 선보인다.

1부 '플라멩코'는 엘비또(El vito), 땅고 데 뜨리아나(Tango de Triana), 화루까(Farruca) 등 정통 플라멩코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가요와 플라멩코의 만남인 2부 '가요멩코'에서는 '비나리', '남남', '밤안개', '저 바다에 누워'가 공연되며, 3부 '민요멩코'는 '단가:추억', '진주난봉가', '후여', '태평가', '밀양 아리랑'로 구성된다.

오는 6월 30일 그룹 '잠비나이'는 '풍류지광'을 주제로 두번째 공연을 펼친다. 한국대중음악상 등을 수상한 '잠비나이'는 2009년에 결성된 포스트록 밴드다. 이일우 (기타, 피리, 태평소), 김보미(해금), 심은용 (거문고), 최재혁 (드럼), 병구(베이스)로 구성된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9월9일에는 김소라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 전통악기인 장구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월드 뮤지션이자 연희 예술가인 그는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7개국 24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했으며 2015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Landscape'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무대는 김마스트리오(11월24일)가 장식한다. 공연 주제는 '방랑자의 음악'이다.

북구문화센터에서는 특별 기획공연도 열린다. 다양한 예술과 빛이 융합된 미디어 퍼포먼스 '쇼디자인 그룹 생동감'의 '하모니 오브 라이트(Harmony Of Light)'를 시작으로 오페라, 전통예술, 무용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북구문화센터와 상주공연단체 협약을 맺은 놀이패 '신명'도 한 해동안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신명의 대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오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를 비롯해 어린이 환경뮤지컬 '삼총사의 대모험', 창작공연 '동백꽃 필 무렵'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빛고을시민문화관 25일 올 첫 월요콘서트

내셔널솔리스텐 앙상블 공연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올해 첫 월요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내셔널솔리스텐 앙상블이 'From Baroque to Modern'를 주제로 바로크시대부터 현대까지 대표 곡을 망라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바이올린 임리경·오인표·김소연·박주앙·이준, 첼로 나유빈·김성복·정아름·이후성, 비올라 신세민·양윤서, 피아노 공기열, 소프라노 윤한나 등이 출연하며 하이든의 '종달새', 헤델의 '파사칼리아' 등을 연주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내셔널 솔리스텐 앙상블은 지난 2019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주회를 비롯해 5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찾아가는 연주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신청은 사전 전화예약(062-670-7926). 올해 진행될 월요콘서트 공모는 이달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월요콘서트는 오는 5월 2일 펠리체 솔리스트의 '4인4색! 만남을 재촉하다(근·현대음악)'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셔널솔리스텐 앙상블

'ACC 전문인' 강좌 다음달부터 진행

직군탐색·콘텐츠 과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직군탐색 과정'과 '콘텐츠 발굴·실행 과정'으로 구성된 'ACC 전문인' 과정을 5월부터 시작한다.

직군탐색 과정은 ACC 현장 및 실무를 토대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융복합 문화기획자', '전시분야 기술 전문가(전시테크니션)' 2개 강좌를 상반기에 진행한다.

'융복합 문화기획자' 강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기획자의 역할'을 주제로 조주현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이루어지며 '전시분야 기술 전문가'는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 현장 구현과 관련 장한별, 언해피서킷, 김명우, 손영재 등 매체예술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콘텐츠 발굴·실행 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무도 참여 가능하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하반기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현장 관련 기초 교육은 융복합 콘텐츠,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메타포트와 증강현실, 1인 낭독극 발굴-실행 등 총 4개 강좌로 5월~6월 비대면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모든 교육비는 전액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CBS '육아엄빠'위한 출생돌봄 토크콘서트

21일 순천문예회관…신현준 출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향후 100년 후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한 221개 시군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CBS가 창립19주년을 맞아 '육아엄빠'들을 위한 출생돌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 주제는 '슬기로운 부모생활'. 이번 콘서트는 CBS가 지난해 출산돌봄 국민운동캠프를 발족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개하는 'Happy Birth K'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됐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쉰둥이 아빠' 배우 신현준<사진> 씨가 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깨달은 지상 최고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네이버 웹툰 '닥터 앤닥터 육아일기'를 집필한 서울대 공학박사 출신 닥터베르 작가와 육아메이트 '미오'로 알려진 부모교육전문가 오연경 대표가 출연해 육아에 관한 생각과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CBS로 전화(061-901-1000)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러 차이콥스키 콩쿠르, 국제콩쿠르 연맹 회원 자격 박탈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다.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는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회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은 유네스코 산하에 1957년 창설된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10여 개 콩쿠르가 가입돼 있다.

연맹은 이 자료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만행에 직면해 러시아 정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홍보 도구로 사용되는 대회를 지지하거나 회원으로 둘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